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03 (화요일)

[오늘의 한 줄]

오라클이 AI 인프라 자금 200억 달러(주식 100억 + 회사채 100억) 조달 계획을 밝히면서 'AI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다시 터졌고, 미국 중간선거(현지 11/3)를 앞둔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외국인과 기관이 2조원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3.59%(5,648.79), 코스닥은 -4.08%(704.39)로 급락해 어제 반등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유가는 평화 협상 기대에 -7% 급락했다가 미군의 이란 케슘섬 공격 보도로 다시 오르는 중입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3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 코스피 5,648.79 (-210.29, -3.59%). -2.46%(5,715.19)로 갭하락 출발해 장중 5,615.80까지 밀렸습니다. 전날 +2.24% 반등을 하루 만에 반납.
- 코스닥 704.39 (-29.97, -4.08%).
- 삼성전자 219,500원 (-4.15%). SK하이닉스 139만8천원 (-5.03%). 삼성전기 110만5천원 (-7.38%).
- 전력기기 3종: HD현대일렉트릭 439,000원 (-1.68%), 효성중공업 197만1천원 (-3.85%), LS일렉트릭 151,500원 (-5.66%). 어제 급등분을 되돌렸습니다.
- 급락 배경: 오라클이 AI 인프라 확장 자금으로 보통주와 회사채를 각각 100억 달러씩 발행하겠다고 밝히자 간밤 오라클 주가가 -8.76% 급락했고 마이크론(-5.78%), 샌디스크(-6.59%)도 내렸습니다. 메타도 200억 달러 규모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연합). KB증권은 "유가 급락에도 하이퍼스케일러의 잇단 자금조달 소식에 기술주 중심 매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불확실성도 투자심리에 부담.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MYH20261103015600038, MTN 마감시황 https://news.mtn.co.kr/article/2026110316125371882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 코스피: 외국인 -1조5,299억원, 기관 -5,147억원(금융투자 -3,485억, 투신 -1,551억, 사모 -1,423억, 연기금등 +1,139억), 개인 +1조6,644억원, 기타법인 +3,657억원.
- 코스닥: 외국인 -764억원, 기관 -2,346억원, 개인 +3,199억원.
- 연기금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 누적(9/23부터 26거래일,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 근사치):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30.5조원, 코스닥 약 1.22조원. [계산]
- ※ 수급 수치는 집계 시점·범위에 따라 기사마다 다릅니다(위 표는 15:35 기준).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3137500008

■ 미국 시장 (11/2 월요일 마감)

- 나스닥 25,164.31 (-1.07%), S&P500 7,541.40 (-0.51%), 반도체지수(SOX) 10,328.33 (-3.37%, 3거래일 연속 하락).
- 개별: 오라클 119.22 (-8.76%), 코어위브 50.15 (-8.60%), 아이온큐 28.17 (-6.23%), 팔란티어 178.34 (-3.13%), 엔비디아 202.06 (-1.26%), MS 507.12 (-2.84%), 아마존 245.63 (+2.20%), 메타 606.73 (-1.34%), 알파벳 278.99 (-0.30%), GE버노바 862.25 (+0.51%), 아폴로 119.46 (+3.13%), KKR 98.01 (+3.83%), 블랙스톤 120.14 (+1.38%).
- 오늘 밤(진행 중): 나스닥100 선물 28,176 부근 (전일 정산 28,127.5 대비 +0.2%, 밤 9시경 수집 값이며 확정 아님).
출처: MTN 마감시황(위와 동일), 야후 파이낸스 종가 데이터

■ 채권·환율·원자재

- 미 국채(11/2 확정): 3개월물 4.21%, 2년물 4.59%, 10년물 4.91%(-0.03%p), 30년물 5.28%. 2년-10년 금리차 +0.32%p. [계산] 최근 입찰은 모두 평이한 결과(직전 10/29 7년물은 예상금리와 동일). 한편 지난주 연준 총재 2명이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CNBC).
- 한국 국고채 3년 3.744% (보합, 오후 4시 19분). 일본 국채 30년 3.874% (+0.006%p, 11/3).
- 원화: 서울 외환시장 오후 3시 30분 기준 1,341원.
- 원유 롤러코스터: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결에 열려 있다는 신호에 월요일 브렌트유는 -7.63%(104.77달러), WTI는 -7.36%(96.46달러)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월요일 늦게 이란 케슘섬을 공격했다는 보도(WSJ)가 나오면서 화요일 아시아 장에서 브렌트 +1.7%(106.6달러), WTI +1.7%(98.1달러)로 반등 중입니다. 공격은 중간선거 하루 전에 이뤄졌고, 미 행정부는 동시에 협상 가능성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 미국 항공유·경유(EIA 현물): 최신 확정값은 10/27 - 항공유 갤런당 4.444달러, 경유 4.687달러. 10/28 이후 값은 아직 미게시.
출처: CNBC 유가 https://www.cnbc.com/2026/11/03/oil-prices-climb-after-us-reportedly-strikes-irans-qeshm-island.html, 미 재무부 일일 금리표, 네이버증권, 인베스팅닷컴 https://www.investing.com/rates-bonds/japan-30-year-bond-yield-historical-data

■ AI 가격 신호 3종 (11/2 미국 마감 기준)

왜 보는가: AI 투자 붐의 균열은 지수 전체보다 '빌려 쓰는 쪽'과 '반도체'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세 가지를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잽니다.
1. 반도체 대 지수 괴리: 최근 20거래일 반도체지수(SOX) -21.59%, 나스닥 -8.42%. 괴리 -13.18%p로 전날(-12.18%p)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계산]

2. 빅4 대 취약 사업자: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MS·아마존·메타·구글) 평균 -18.22% (MS -6.7%, 아마존 -13.5%, 메타 -22.0%, 구글 -30.7%), 취약 3사(오라클·코어위브·블루아울) 평균 -43.91% (오라클 -52.0%, 코어위브 -63.7%, 블루아울 -16.1%). [계산]
3. 나스닥 고점 대비 -8.82% (전날 -7.84%). [계산]
- 참고: 코스피도 최근 고점(7,080.92) 대비 -20.2%로, 흔히 말하는 약세장(-20%) 진입선에 닿았습니다. [계산]

[판단]

- 기조: '위험 회피'를 유지하며 강도를 높입니다. 어제의 반등이 하루 만에 반납됐고, 아래 [AI 위험 v1]에서 자금조달 조건(A)이 처음 충족돼 위험 판정이 한 단계 올랐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1.5조원대로 커졌고 개인만 홀로 1.7조원을 받아내는 구도입니다. 유가의 급등락은 11/3 미국 중간선거 결과(한국 시간 11/4 오후부터 윤곽)와 함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판단이 바뀌는 조건: (1) SOX-나스닥 20일 괴리의 -5%p 이내 축소와 외국인 순매수 재개, (2) AI 자금조달 철회 사례의 추가 확산이 멈추는 확인(현재 30일 내 2건 이상), (3) 빅테크의 현금흐름 압박 완화 확인.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5,648.79 아래일 것" - T+1(11/4, 수)과 T+5(11/10, 화)에 각각 검증합니다.

[복기]

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1/2 판단: "코스피 종가가 5,859.08 아래일 것" (T+1, 11/3 검증) → 실제 종가 5,648.79. 적중.
- 10/27 판단: "코스피 종가가 5,638.34 아래일 것" (T+5, 11/3 검증) → 실제 종가 5,648.79. 빗나감 (기준선을 10.45포인트 웃돔).
- 해석: 어제의 '하락' 판단은 곧바로 이어진 급락으로 들어맞았습니다. 반면 10/27의 5일 뒤 판단은 오늘의 급락에도 기준선을 넘지 못해 빗나갔습니다. 검증이 끝난 최근 15건 중 적중은 6건입니다. 적중 횟수가 판단의 질 전체를 증명하지 않으며,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결과는 독립적인 검증이 아니라는 한계를 함께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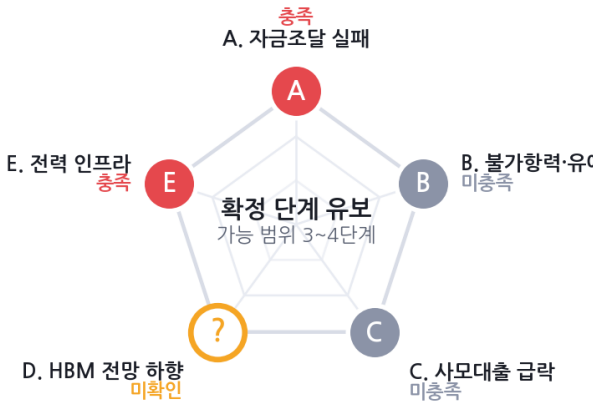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AI 위험 오각형 신호등

2026-11-03 (화) 기준 · 충족 2 · 미충족 2 · 미확인 1

A 신규 충족: 데이터센터 IPO 5건 철회·연기(IFR)+앤트로픽 채권 매각 보류



충족 미충족 미확인: 판정 보류

미확인은 점수를 매기지 않고 판정을 보류한 항목입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충족 - 오늘 새로 충족했습니다. IFR(로이터 계열 채권 매체) 최신호는 데이터센터 기업 IPO 5건이 철회 또는 연기됐고 복수의 파이낸싱이 보류됐다고 전했습니다. 개별 사례로는 호주 네오클라우드 Firmus가 IPO 마케팅 시작 사흘 만에 투자 수요 부족으로 철회했고, 한국의 엘리스그룹은 일반청약 400대 1의 흥행에도 상장 첫날 -32% 급락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영국 데이터센터 계약 취소로 Nscale의 IPO 계획에도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피치북 10/21). 앤트로픽과 연결된 텍사스 허바드 데이터센터의 150억 달러 대출 채권 매각 보류(10/29 블루버그). 여기에 블랙스톤 계열 QTS의 8억 달러 차입은 6개월 전보다 0.5~0.8%p 비싼 금리로 다시 팔리는 등 같은 담보에도 돈값이 오르고 있고(세마포 11/2), 코어위브 채권 수익률은 16% 부근의 디스트레스(부실 징후) 영역에 있습니다.
- B. AI 인프라 금융의 불가항력 선언·지급유예 (최근 30일): 미충족 - 오라클의 프로젝트 주피터 불가항력 통지(9/24)는 30일 창구를 벗어났고, 창구 안의 신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C. 사모대출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미충족 - 아폴로 -16.8%, KKR -15.0%, 블랙스톤 -19.5%. 블랙스톤이 기준선(-20%)에 근접했습니다.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 전망 하향 공시: 미확인 - 증권사의 이익 전망 하향(BNK, 9월)은 있으나 회사 공시 기준의 HBM 전망 하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0/29 실적 발표에서 "AI 칩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며 수요는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 중 2종 이상이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유지) - HD현대일렉트릭 -69.1%, 효성중공업 -57.2%, LS일렉트릭 -52.4%. GE버노바는 -26.6%로 기준 미달. [계산]
- 종합: 충족 2개(A, E)로 기계적 매핑상 3단계에 해당하지만, 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 가능 범위는 3~4단계로, 어제(유보, 2~3단계)보다 한 단계 올랐습니다. D가 '미충족'으로 확인되면 3단계, '충족'이 확인되면 4단계가 됩니다.
출처: IFR https://www.ifre.com/bonds/2502504/coreweave-rout-freezes-data-centre-financing, 피치북 https://pitchbook.com/news/articles/coreweave-debt-tumbles-anew-as-korean-neocloud-ipo-tanks, 블룸버그 로 https://news.bloomberglaw.com/capital-markets/banks-shelve-bond-sale-for-anthropic-tied-texas-data-center, 세마포 https://www.semafor.com/article/11/02/2026/blackstone-backed-data-center-operator-tests-ai-debt-fears
이 기록은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